

# 주체적 신데렐라에 '깜짝' ... 화려한 성악 기법엔 '전율'

## 리뷰-가족오페라 '신데렐라'

광주시립오페라단 아시아문화전당서 공연  
'로시니' 음악성·벨칸토 창법 정수 보여줘  
'운명 개척' 중요성 역설...원작과 차이 극명  
티키타카 중창 폭소...극고음엔 감탄 연발

쫄깃함을 뒤집어 쓴 아가씨 체네렌틀라가 노래한다. 우리에게 '신데렐라'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로시니 버전의 이야기다. 동심을 자극하는 시놉시스 때문인지 이날 공연장에는 어린이 관객들이 눈에 띄었다. 열두 시의 마법과 금빛 호박마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하게 빛났다.

그런데 상연에 앞서 작품을 연출한 이경재 해설가는 "오늘 공연은 로시니가 17세기에 '이탈리아 오페라'로 각색한 버전이기 때문에, 원작에 등장하는 판타지적 내용을 고스란히 볼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유리구두, 마치 없이 신데렐라가 현실의 질곡에서 탈출하기란 쉽지 않을 터, 과연 로시니의 베리소모 오페라(사실주의·Verismo Opera) 속에서 동화적 환상은 어떻게 재현됐을까.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 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인 '가족오페라 신데렐라'는 로시니의 음악적 천재성과 미려한 벨칸토 오페라 창법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이었다. 초고음역을 소화하는 콜로라투라(coloratura) 기법부터 시중단디니(바리톤·조제프 분)와 앙리니 클로리나(소프라노·김나연), 티스베(소프라노·서미선) 등을 중심으로 재해석된 해석성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세계적 고전 '신데렐라'는 친근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실연하기 어려운 만큼 고도의 테크닉, 난이도를 자랑한다. 심지어 로시니의 원작에서도 '로시니 가수'라 일컬어지는 일부 오페라 싱어들이 소화 가능한 정도, 극고음(하이 C) 옥타브의 전율은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더한다.

작품 초입에서 하녀처럼 일하는 신데렐라(메조소프라노·지나 오)의 정형이 등장한다는 점은 원작과 유사했다. 그러나 거지로 변장해서 구걸하러 온 알리도르(베이스·김일동)로 인해 그녀가 무도회에 참가한다는 점, 계모 대신 등장하는 의붓아버지 돈 마니피코(바리톤·김지숙)의 존재 등은 서양고전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성의 주체성'에 집중해 극을 풀어나갔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신데렐라는 알리도르에게 자신의 의지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로 왕자를 만나게 됐다는 점은 '주체적 운명 개척'과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2막 초입에서는 왕자에게 '유리구두'를 흘렸던 대목도 개작됐다. 우연히 구두를 잃어버리는 우연성에 가뒀던 원작과 달리, 로시니 버전은 신데렐라가 팔 한 쪽을 징표처럼 남기고 떠나는 내용이었다.

작품 속에서 강조된 여성의 결정권 강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로시니가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

인 중 이사벨라, '세비아의 이발사'의 로지나 등에서 모두 스스로 운명을 써내려가는 대담한 여성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이번 작품은 코믹한 내용을 첨가한 희극극인 만큼, '파를란도(Parlando-빠른 대사)'와 같은 희극 요소를 통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대사를 랍처럼 뱉는 파를란도는 '로시니 크레센도'라 불릴 정도로 로시니가 애용했던 기법이다. 안젤라나 두 자매와 돈 마니피코는 중창 '중대한 비밀이 있는데'에서 빠른 '타카타카'로 관객들을 폭소로 이끌었다.

오케스트라 카메라타전남과 배역들 간 소리의 합(合)도 좋았다. 울려 퍼지는 '피날레 프리모' 등은 어디부터가 현의 진동인지, 어디까지가 인간의 성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게 공명했다.

스타카토, 트릴, 레가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안젤라나와 난곡 '이젠 슬프지 않아요'도 기억에 각인됐다. 메조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음성은 풍부한 양감(量感)으로 공연장을 채웠으며, 삽화 형식의 라이브 애니메이션도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다만 극 초입-중반부에서 어린이 관객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고민은 더 필요해 보였다. 95분 러닝타임의 4세 이상 관람가 작품이었기에 '마법', '무도회' 등을 기대했던 일부 어린이들의 집중은 쉽게 흐려졌다. 초·중반부에도 오페라 부파(희극)적 요소를 배치하는 등 방법이 떠올랐다.

물론 이는 '어린이 관객'을 동원하는 가족오페라의 태생적 리스크다. 그럼에도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최철 예술감독 선임 이후 과감하게 로시니 버전을 첫 공연으로 선보이고, 주말 관객몰이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신데렐라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 유리구두 대신 '팔찌'를 남기고 떠나간다.

→신데렐라와 돈 라미로 왕자, 시중 단디니 등이 노래하는 장면.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 신예들의 바이올린 선율



'RISING STAR' 바이올린 음악회 공연 장면. (이준바이올린클래스 제공)

### 이준바이올린클래스 음악회 다음달 3일 광주예술의전당

바이올리니스트의 길을 걷는 초·중·고 및 대학 생 연주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음악회가 펼쳐진다.

이준바이올린클래스가 'RISING STAR' 바이올린 신인음악회를 오는 8월 3일 오후 6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내셔널솔리스트 양상범 악장 등을 맡고 있는 이준 바이올리니스트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동량들을 위해 마련한 공연이다.

성시은(여수진성여중3)의 바흐 '미뉴엣 3번'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신유빈(한울초3)의 오스카리딩 곡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6'으로 이어진다. 정수오(불로초4)는 보케리니 '미뉴엣

을, 이재솔(여수여도초5)는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호남예술제 69회 합주(금상) 출신인 김가은(광주교대부설초6)이 들려주는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Op.26'과 한예준(고창북중1)의 몬티 곡 '차르다시'도 레퍼토리에 있다. 조광훈(호남삼육중1), 이수인·이예인(광주예중2), 한가연·이주혁(광주예고1), 최윤서(광주예고2) 등도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김시은(영암여고2)의 팔로 곡 '심포니 에스파그늘 Op.21', 김연우(호남예술제 68·69회 각각 은상) 및 예예찬(광주예고3)의 글라주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등이 울려 퍼진다. 백의진(단국대3)은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소'를 연주하는데 영화 '굿바이 칠드런' 등에 삽입됐던 OST 곡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신안선 만들기'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온라인 체험교육 선착순 400명 모집

지난 1975년 신안군 중도 해역에서 발견된 신안선은 원나라 무역선이다. 14세기 최대 무역선으로 도자기 2만여점을 비롯해 동전 28톤, 금속 공예품 1000여점이 실려 있었다. 현재 선체 일부는 2002년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 등을 거쳐 전시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신안선을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신안선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온라인 체험교육 '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해양문화재'에 참여할 어린이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8월 4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대표적인 해양유산인 '신안선'과 참가팀과 꿀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梅瓶)'을 동영상으로 알아보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체험교구를 집에서 조립해 보는 시간이다.

김성배 소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만들기 체험을 매개로 어린이들이 해양유산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 확정된 신청자들은 '신안선 만들기'와 고려청자 매병을 꾸며보는 '매병 만들기' 체험교구 2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교구 수령한 후 연구소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 토대로 자유롭게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누리집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삶을 은유하는 '바다' 은암미술관 리강 초대전 다음달 17일까지

올해는 도깨비 장마로 불릴 정도로 장맛비와 폭염이 뒤섞인 날씨가 장기간 지속됐다. 그만큼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다. 높아진 해수면 온도 탓에 수증기가 많이 유입된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전선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여름철 하면 지루한 장마와 아울러 한편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연상된다. 여름은 바다를 하나의 시선이 아닌 다각도 관점으로 사유하게 하는 계절이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Sea Level' (海平面)을 주제로 중국 작가 리강 초대전을 열어 눈길을 끈다.

27일 개막해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초대전은 다채로운 여름의 풍경을 보여준다.

리강은 지난 2011년 베이징에 소재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작업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광주와 첫 인연을 가졌다. 이후 2014년 무안과 남해 등지를 여행한 계기로 2015년 사진초대전 '南海记忆(남해인유)'를 개최했다.

이번 'Sea Level'은 뜻 그대로 잔잔한 바다의 풍경을 초점화했다. 해변에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작품 외에도 바다를 심미안으로 들여다 본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작품 'Sea Level'은 일반적인 여름 바다 풍경과는 다른 이미지를 발한다. 검푸른 바다 이면의 약동하는 에너지는 신비함과 두려움을 선사한다. 질



'Sea Level'

푸른 바다는 언제나 물려올 폭풍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복잡다단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들을 은유하고 있는 듯 하다.

리강 작가는 "이번 전시는 코로나 이후 첫 번째 선보이는 자리"라며 "이번 전시를 매개로 다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과의 미술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리강은 호주 퍼시시 클레어먼트 예술대학 조소과와 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다.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베이징 슈이포춘스튜디오 및 실험음악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중국, 미국, 호주 등에서 다수 개인전을 열었다.

한편 정지용 은암미술관 학예실장은 "'Sea Level'이라는 주제는 바다가 지닌 원초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모습 외에도 '삶의 바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며 "아울러 리강 작가 초대전이 광주 전남 작가들과 중국 작가들 교류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환경 지키는 '인생은 아름다워' 아시아공연예술위 음악회

### 다음달 3일 서구문화센터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업사이클링 악기', 탄소중립 의미를 담은 '캠페인 송' 등으로 채워지는 연주회.

환경보호 등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총감독, 지휘 장현룡)가 오는 8월 3일 오후 5시에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치는 '인생은 아름다워'가 바로 그것.

시민윈드오케스트라의 '밤새도록 춤을 출 수 있다면', '콘서트 밴드를 위한 Ross roy'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은 영화 레미제라블 OST인 '레미제라블', 최완규가 편곡한 '코리안 사운드 컬렉션3-이문세 메들리'로 이어진다.

정소년들로 구성된 업사이클링 타악 퍼포먼스 팀 '퍼포먼스 티에이저'가 들려주는 'Take five, Ritimo da Avenida'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들은 광주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중 퍼블릭 프로그램 일환으로 서구 주변의 재활용품을 수집, 악기로 재탄생시켜 공연을 선보일



지난 20일 '인생은 아름다워' 공연 리허설에서 노래하는 시민윈드·늘푸른 합창단.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제공

예정이다. 늘푸른합창단(지휘 양복선)은 이문석이 편곡한 '오 해피데이!', '아침 이슬' 등을 부른다. 이 밖에 또 초록빛어린이합창단(지휘 유효임)은 '우리들의 마법학교'와 환경부 등의 '탄소중립 캠페인 송'을 부르며 대미는 전 출연진이 부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마무리한다.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장현룡 총감독은 "탄소중립 캠페인송'은 환경부 협조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 선보이는 작품"이라며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이번 공연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